

전남도, 드론·인공지능 활용 해양 공간정보 구축한다

정부 스마트빌리지 보급사업 선정
2027년까지 연차적 확산사업 추진
내륙 국한 정보서비스 영해로 확대
해양쓰레기 수거 등 현안해결 기대

전남도가 드론·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해양 공간정보 구축에 나선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5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내륙에 이어 영해 공간정보 서비스도 제공, 해양쓰레기 수거·유해생물 관리 등 해양지역 현안 해결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드론·인공지능(AI) 기술 활용 지능형 해양 공간정보 구축사업이다. 총사업비 30억원 중 올해 국비 4억원을 확보했다. 해수욕장, 어촌마을 경관 개선, 해양쓰레기 업사이클링으로 연안 생태계가 회복되고, 어민 소득 증대와 생활 편의 개선이 기대된다.

스마트빌리지 사업은 인공지능·데이터

등을 활용한 디지털 서비스 도입을 지원해 지역사회의 디지털 전환과 경쟁력을 강화, 삶의 질을 높이고 균형발전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도는 사업 선정에 따라 해양쓰레기 우심지역 탐지·분석·모니터링 통계 데이터의 시각화에 나선다.

현재까지 내륙에만 국한된 공간정보 분석·활용 서비스를 해양 분야로 확대해 드론·인공지능과 공간정보 융복합 기술 기반 지능형 해양 공간정보를 구축한다. 2027년까지 연차별 확산사업으로 추진한다.

또한 해양쓰레기 분포와 해류 정보를 분석해 계절별 해양쓰레기 유입 경로를 예측하고 해양쓰레기 수거와 방제 대책 수립 등 간접 지원을 위해 해당 지역에 고정형 무인 드론 스테이션을 설치해 실시간 해양쓰레기 위치 알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취득한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해안 모래 침식, 폐어선 관리, 무인도 방치 쓰레기, 해양 유해생물 관리와 같은 섬, 소항구, 어촌계 지역별 현안 해결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승재 전남도토지관리과장은“국토는 영토, 영해, 영공이다. 지금까지는 영토에 국한된 공간정보 서비스를 했으나 앞으로는 영해에 대한 공간정보와 인공지능(AI) 융복합 기술을 활용해 도민이 체감하도록 모든 행정 분야에 대한 공간분석 서비스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손바닥 크기의 쓰레기까지도 찾아내고, 어느 지역에 어느 시기에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쌓이는지, 유해생물을 없는지 과학적 분석도 이뤄질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오지현 기자** jinyun.oh@jnilbo.com

전남 귀농어귀촌인 “도시민 유치 확대 노력”

함평서 어울림대회 개최
재향경우회 등과 업무협약

전남도는 23일 함평군 문화체육센터에서 ‘2024년 전남 귀농어귀촌인 어울림대회’를 열어 귀농어귀촌인과 함께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도시민 유치 확대에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어울림대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옥환 전남도귀농어귀촌인연합회장, 고재영 전국귀농어귀촌인연합회장, 주상봉 대한민국재향경우회장, 김문수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 이남호 함평군의회 의장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제2 베이비부머(1965~1974) 세대 은퇴에 대비한 전남도-대한민국재향경우회-전남귀농어귀촌인연합회 간 도시민 유치를 위한 상생 발전 업무협약이 진행됐다.

대한민국재향경우회는 1960년 설립된 퇴직 경찰공무원 단체로 150만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남도의 귀농어귀촌 프로그램 참여·

홍보에 적극 협력하고, 전남도와 함께 도시민 유치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사)전남도 귀농어귀촌인 연합회 주관으로, 우수 귀농어귀촌인 도시자 표창, 업무협약, 퍼포먼스, 시군별 노래자랑 순으로 진행됐다.

시상식에서는 김종택 장흥군귀농어귀촌인연합회장 등 5명이 귀농어귀촌인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사회 융화에 기여한 공로로 도지사 표창장을 받았다.

김영록 지사는 “이번 어울림대회가 귀농어·귀촌인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고, 상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활력 넘치는 농산어촌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6년 설립된 (사)전남도 귀농어귀촌인연합회는 현재 450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또한 매년 21개 시군 귀농어귀촌인협의회와 함께 서울, 경기, 부산 등 대도시에서 귀농어귀촌 홍보 캠페인을 펼치는 등 도시민 유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오지현 기자



캐스퍼 EV 수출기념식

강기장 광주시장과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윤몽헌 광주글로벌모터스 대표이사,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 등이 23일 광주글로벌모터스 출하장에서 열린 캐스퍼 EV 수출 기념식에서 상차되는 차량을 보고 손을 흔들고 있다. ▶관련기사 1면

나건호 기자

광주김치축제 관람객 6만8천여명… 매출 8억원

스타셰프 푸드쇼·천인의 밥상 ‘인기’
김치마켓·뮤지컬·패션쇼 등 큰 호응

광주시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동안 시청 광장 일원에서 개최한 ‘제31회 광주김치축제’에 6만8000여명의 방문객이 다녀가고 8억2000여만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우주 최광(光) 김치파티’를 주제로 열린 올해 광주김치축제는 기존의 김치 담그기 체험과 경연대회, 판매 위주에서 벗어나 ‘광주김치 스타셰프 푸드쇼’, ‘천인의 밥상’ 등 직접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관람객의 호응을 이끌었다.

특히 넷플릭스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최현석, 여경래, 파브리치오 페라리 셰프와 사찰음식 명장 정관스님이 참여한 ‘광주김치 스타셰프 푸드쇼’는 큰 인기를 끌었다.

4명의 요리사들은 광주시가 해마다 여는 ‘대한민국 김치 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광주김치를 소재로 △갯김치 간장게장 리조토 △대하김치 통새우 고기

찜 △맨드라미 백김치 묵밥 △갯물김치 문어 냉파스타를 관람객 앞에서 직접 만들고, 100명의 관람객이 그 자리에서 시식하며 현장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광주김치 스타셰프 푸드쇼’는 관람객들의 문의 쇄도로 인터넷방송 헬로광주를 통해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김치마켓은 관람객의 문전성시를 이뤘다. 최근 산지 배주가격 상승으로 김치가격에 대한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배추김치 1kg에 8000원부터 판매하며, 저렴하고 품질 좋은 김치를 구매하려는 관람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일부 판매업체의 경우 조기 매진하는 등 김치축제 사흘동안 4억100만원 판매고를 기록했다.

올해 ‘천인의 밥상’은 향아리 통삼겹 바비큐, 김치치즈 삼겹말이, 당근김치 타코, 보리열무 육회 비빔밥, 묵은지 잡채, 김치말이 국수, 김치전 등 30여 종류의 김치요리를 선보이며 1억9100만원의 판매를 기록, 큰 인기를 끌었다.

고품격 그리너리(활용용 세트나 배경 제작에 필요한 식재료 또는 식물성 장식물) 공간, 다화용기(9종 14만여개) 사

용, 합리적인 음식가격 등 호평이 이어졌다.

이밖에 뮤지컬 ‘나의 첫 김치파티’, 김치댄스 ‘나는 김치입니다’와 시대별 김장복장의 변천사를 선보인 ‘김치 패션쇼’ 등을 통해 김치가 단순히 먹는 음식이 아닌 세계가 열광하고 있는 K-콘텐츠의 핵심임을 실감케 했다.

올해 김치축제 현장에는 외국인 관람객이 크게 증가해 눈길을 끌었다.

프랑스·영국·미국·일본·헝가리·베트남·캐나다 등 15개국 이상 나라 외국인이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을 위한 ‘글로벌 김치 라운지’에는 스태프 투어를 하는 외국인으로 가득했다. 어린이를 위한 ‘김장 오락실’도 가족동반 관람객이 많이 찾는 명소가 됐다.

주최회 경제장업국장은 “올해 광주김치축제는 광주 김치가 하나의 고유한 장르가 됐으며 광주를 대표하는 브랜드임을 증명하는 현장이었다”며 “내년 광주김치축제에서도 전 세계 김치문화 트렌드를 이끄는 새로운 콘텐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전남관광재단-쏘카, 위케이션 활성화 ‘맞손’

연계상품 개발·유치 등 협력
참가자 혜택·할인 서비스도

전남관광재단은 쏘카(SOCAR)와 전남블루위케이션의 성공적인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단과 쏘카는 △위케이션 연계관광상품 개발 및 할인 제공 △위케이션 사업 콘텐츠·프로그램 제공 및 공유 △관광경쟁력 및 지역활력 제고 △국내외 위케이션 참가자 유치·홍보 등 기타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쏘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전남블루위케이션 참여자에게 차량 대여료 할인 혜택을 제공, 참가자들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위케이션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차중 또한 경형부터 중형까지 다양한 크기의 차를 제공해 참가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로써 위케이션 참여자들은 쏘카의

모빌리티 서비스를 통해 전남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숨겨진 관광명소를 더욱 쉽게 탐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곳 어디든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이동 편의성도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신명 쏘카 카셰어링 본부장은 “전남은 다양한 관광명소와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갖춘 지역으로, 위케이션 참가자들이 일과 휴식을 동시에 즐기기에 최적의 장소”라며 “쏘카와 연계한 다양한 혜택을 통해 참가자들이 더욱 편리하고 합리적인 위케이션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신 전남관광재단 대표는 “이번 협약은 전남블루위케이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참가자들이 전남에서 일과 휴식을 동시에 누리며 지역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

전남도, 안전사고·재난 예방 기여 도민에 포상금

전남도는 안전신문고 신고를 통해 안전사고와 재난 예방에 기여한 도민 73명을 선정해 안전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안전신고 대상은 생활안전, 교통안전,

시설안전, 학교안전, 어린이안전, 산업안전 등에 대한 관행, 법·제도 개선, 제언 등 안전 관련 모든 분야가 해당된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안전신문고 누리집(www.safetyreport.go.kr)이나

휴대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한 내용을 대상으로 한다.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거쳐 위험 개선 우수 신고자 20명, 다수 신고자 53명을 각각 선발, 5만원에서 최대 50만원 등 총 1000만원의 포상금을 차등 지급한다.

오지현 기자

진일보

@jnilbo

Kakao Talk : 진일보
E-Mail : jebo@jnilbo.com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뉴스서비스입니다.
한발 빠르게 정확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

